

전기차/배터리산업

전기차/배터리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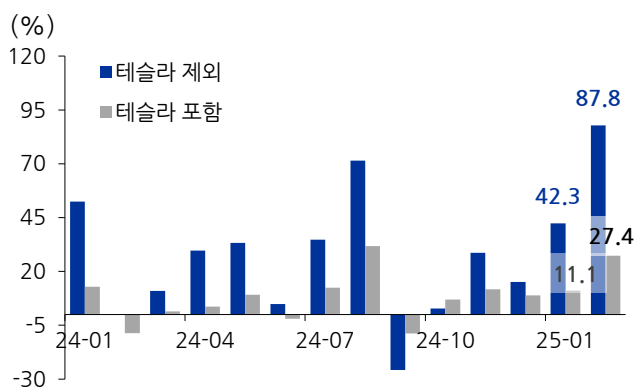
미국,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BEV 판매 증가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미국은 트럼프 리스크 있지만, 유럽은 정책 지원으로 전기차 판매 예상보다 상회 가능성 커. K배터리 2분기 턴어라운드 가 시화. 여전히 성장 초기 국면

테슬라 제외하면 전기차 시황 턴어라운드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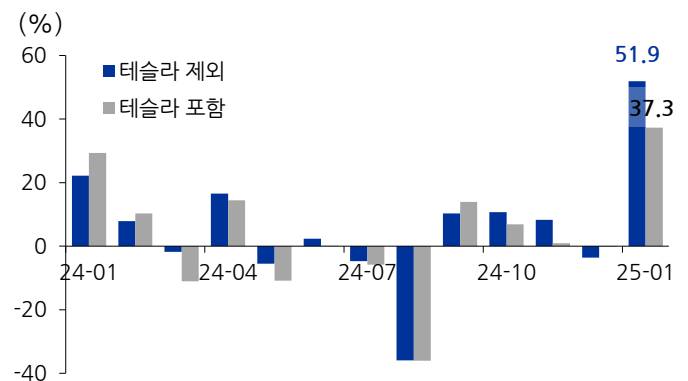
- 미국 비테슬라 BEV 판매 증가율 1월 42.3%, 2월 87.8%로 전체 BEV 판매 증가율 대비 현저히 높아
- 유럽도 테슬라 제외한 1월 BEV 판매 증가율 51.9%로 전체 BEV 증가율 37.3%보다 높아
- 테슬라의 부진은 모델Y 리프레쉬 모델 대기 수요, 머스크의 평판 리스크라서 회사 개별적인 원인
- 미국은 테슬라 부진이 지속된다면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가능성 높아져
- 유럽은 테슬라 비중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 지원 강해지고 있어서 전기차 판매 추정치 상향 가능
- 독일 특별 예산에 1천억유로 그린산업 지원 포함되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 가능성 높아. 하반기 확정될 EU 액션 플랜인 전기차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기업 구매 차량 전기차 전환 위한 입법화도 유럽 시장 활성화 요소
- K배터리 1분기 저점으로 업황 턴어라운드 예상. 전기차 시장은 성장 초기 국면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미국 월별 전체/비테슬라 BEV 판매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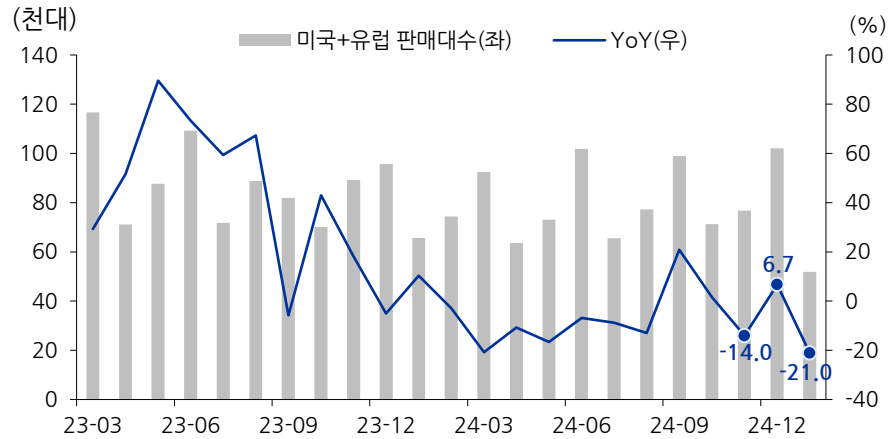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Argonne, 유진투자증권

유럽 월별 전체/비테슬라 BEV 판매 성장률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도표 1. 미국과 유럽의 합산 테슬라 판매 성장률



자료: ACEA,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테슬라 제외하면 BEV 판매 급증한 미국

미국의 1월, 2월 BEV 판매는 각각 전년비 11.0%, 27.4% 증가했다. 반면 테슬라의 판매는 -11.8%, -9.1% 감소했다.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 위인 테슬라 판매를 제외하면 BEV 판매 증가율은 각각 42.3%, 87.8%에 달했다. GM,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혼다 등이 기존과 신규 모델 판매 증가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테슬라 모델 Y 리프्रेस이 판매가 본격화되고 저가 모델 출시도 가이던스 대로 이루어지면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머스크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악화된다면 테슬라 판매 부진이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을 예상보다 낮게 할 것이다. 이는 비 테슬라 업체들에게는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은 전기차 판매 추정치 상향 가능성 높아져

유럽도 테슬라 판매를 제외하면 1월 BEV 판매는 전년비 51.9%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테슬라의 비중이 미국 대비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진이 전체 전기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보다 최근 확정된 정책이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예상보다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통과된 독일의 5 천억유로 인프라 부양안에 1 천억유로는 그린산업에 집행된다. 일부가 전기차 구매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 집행부의 자동차 산업을 위한 액션 플랜에 포함된 전기차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기업 구매 차량 전기차 전환 위한 입법화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K 배터리 투자자들 비관 일색, 역발상 필요 시점

테슬라의 판매 부진은 K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비해 비테슬라 전기차 판매 증가는 K 배터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트럼프 리스크가 상존하는 미국의 시장 불확실성은 있지만, 유럽은 정책 불확실성이 지원 확대로 상쇄되고도 남을 수준이다. 1, 2 월 판매 추세가 유지되면 K 배터리의 업황 리바운드는 2 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배터리 관련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을 기고 있다. 트럼프의 절대적인 존재감,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우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사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K 배터리의 주력 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BEV 판매는 전체 신차 판매의 11%(2024 년 기준)인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이다.

도표 2. EU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Action Plan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터리 산업 강화 (Battery Booster 패키지)	배터리 제조 지원 확대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지원에 총 30억 유로 투입
	첫 번째 지원금: (2024년 12월 3일 공고), 10억 유로 배정 / 추가 지원금: '25~'27년 동안 18억 유로 추가 배정
	EU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중복 수령 허용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배터리 원자재 채굴·정제 역량 확보 (유럽 내 및 해외 협력)
	배터리 소재(양극재, 음극재 등) 및 부품의 EU 내 생산 비율 50% 이상 확대
	배터리 셀팩 제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 검토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강화
	배터리 폐기물 관리를 강화, 비 OECD 국가로의 수출 금지
	EU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확대 지원
	2025년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 방안 검토 및 투자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탄소 발자국 산정 기준 마련
	탄소 배출량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계산하는 방법 발표 예정
	Horizon Europe을 통한 차세대 배터리 R&D 지원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3억 5천만 유로 배정
	첨단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및 고체전해질 배터리 연구
	TechEU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배터리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
전기차 보급 촉진 & 충전 인프라 확대	배터리 셀 및 팩 제조 스타트업 투자 촉진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층 및 교통 취약 계층 대상 전기차 리스 지원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2025년 기업 차량 전기차 전환을 위한 법안 초안 발표 → 2025년 말까지 법제화 추진
	유럽 내 전기트럭 도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검토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5억 7천만 유로 투자
	TEN-T 물류 거점에 대형 전기트럭 충전소 설치 (2025년 3분기까지 초기 구축 목표)
	스마트 & 양방향 충전(V2G) 지원 정책 발표 (2026년)
	전기차 관련 규제 개정
	자동차 라벨링 규정 개정 (2026년) → 전기차 배터리 원료·탄소 발자국 정보 포함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의무화 (2026년)
	AFIR(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검토 (2026년) → 전기차 충전소 가격 투명성 강화

자료: Europe Commission, 유진투자증권

도표 3.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786	2,181	2,812	3,621	4,509	5,449	6,550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49	1,889	2,451	3,180	3,970	4,790	5,747
YoY(%)	51.2	56.3	7.9	22.0	29.8	29.7	24.9	20.6	2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9.3	11.1	14.0	17.9	21.9	25.9	30.4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34	8,497	11,432	13,571	15,783	18,064	20,346	22,167	23,647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030	13,082	15,189	17,343	19,476	21,113	22,361
YoY(%)	83.7	36.6	36.3	18.6	16.1	14.2	12.3	8.4	5.9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5.6	41.0	46.2	51.2	55.8	58.8	60.4
일본 전기차 판매량	59	89	60	77	97	127	161	202	248
YoY(%)	39.4	50.5	(31.9)	27.0	27.1	30.8	26.4	25.2	23.2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3	1.9	1.3	1.6	1.9	2.5	3.1	3.8	4.6
기타 아시아 총합	501	628	683	825	992	1,188	1,417	1,704	2,075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023	3,467	3,933	4,432	5,026	5,827	6,802
YoY(%)	15.1	18.1	(1.7)	14.7	13.5	12.7	13.4	16.0	16.7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2.5	25.5	28.3	31.3	34.8	39.5	45.3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3	497	646	827	1,033	1,271	1,525	1,800	2,106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887	20,046	23,561	27,388	31,406	35,243	39,105
YoY(%)	55.0	35.7	23.4	18.7	17.5	16.2	14.7	12.2	11.0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8	21.7	24.7	28.2	31.7	34.8	37.9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4.12.31 기준)